

부처님오신날 특집

# “부처님은 우리들 마음에 계시네”



## 그림·조각으로 보는 부처님 탄생



조항숙씨의 “부처님 오시는 길”. 마이부인의 꿈에 부처님이 흰 코끼리를 타고 태중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을 토대로 했다.



◇순연작 “순-그 일곱살을”.



불교자수연구가 남상민씨가 한말한말 수놓은 ‘팔상성도’ 중 부처님 탄생모습. “아름 용이 폭목을 시키네”란 제목이 붙여졌다.



◇캐나다 탄린곡엔 재단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佛門(Buddhist Door) 사이트의 부처님 일대기중 한 장면. <http://www.tunlinkok.ca/>

김영희씨의 락종이 인형. 중생들을 감사하는 자애로운 부처님의 모습을 표현해 부처님 오신 뜻을 상징화했다.



돈황석굴 제277굴의 서벽 남쪽부분에 그려진 부처님 탄생도. 당나라때 제작된 것으로 선의 부드러움과 색상이 돋보인다.



물비니 미야데비 사원에 모셔진 우리나라 탄생불을 네발의 화기가 그려졌다. 네팔우편엽서에 인쇄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 부처님오신날

최호익 흥제초등학교 4학년

엄마손 잡고  
 시내에 갔다  
 일렬종대로 매달린  
 연등  
 부처님 내려오는 길  
 만해스님 오시나  
 성철스님 오시나

그 길에  
 고무다리  
 질질 끌면서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는 아저씨  
 연꽃같은  
 바구니에  
 엉거주춤  
 500원짜리 동전을  
 넣었다  
 엄마는  
 부처님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늘 계시다고 하셨다

금동옷 입고  
 연꽃마차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속에  
 소리없이  
 계시는 부처님

#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 마음을 청정하게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향 한 개의 향기가 퍼져 온 세상을  
 향기롭게 하듯, 바른 수행자의 존재는  
 이세상의 희망입니다.

大韓佛敎曹溪宗  
 宗 正 老 天 月 下  
 總務院長 太公 月珠